

태권도와 국악 · 한지공예까지

오늘부터 무주 태권도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문화 전파 위한 'K-STAY' 운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과 함께 태권도를 비롯한 국악·한지공예 등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한 '문화, 교류를 만나다 K-STAY' (이하 K-STAY)을 운영한다.

K-STAY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구성되었다.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K-POP과 K-DRAMA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을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K-STAY는 총 7회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원에서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중국 등 5개국 3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가운데 1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회 K-STAY에서는 태권도와 국악 등을 체험해 보고 각국의 전통 춤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 등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2일차 '약속 격파, 나와의 약속'에서는 참가자 개인이 가진 나쁜 습관이나 버려야 할 것들을 송판에 적어 격파로 제거한다. 또한 'DIY. KOREA'에서는 한지 공예를 배우는 등 K-STAY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태권도진흥재단이 세종학당재단·아시아발전재단과 함께 태권도를 비롯한 국악·한지공예 등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한 '문화, 교류를 만나다 K-STAY'를 운영한다.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재단은 태권도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알릴으로써 우리 문화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과 세종학당재단,

아시아발전재단은 지난 3월 19일 3차 간담회협약을 맺고 K-STAY 운영을 통한 한국 문화 전파에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으며, 2회 K-STAY부터는 한글을 활용한 도장만들기와 캘리그라피 등의 프로그램도 반영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사예술회관서 '뮤지컬 3DIVA 콘서트' 열려

뮤지컬 3DIVA 콘서트가 6월 15일 오후 4시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뮤지컬 레전드인 최정원과 전수경, 홍지민이 출연해 최상의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뮤지컬 맘미아와 맨 오브 라만차, 드림걸즈 등 대표적인 뮤지컬 넘버와 MBC 복면가왕, KBS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곡들을 선보인다.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의 뮤지컬 메들리 연주와 함께 홍지민의 '말하는 대로'와 최정원과 The Muse의 '뮤지컬 메들리(뉴욕 뉴욕+지금 이순간+댄싱퀸)'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관계자는 "공연은 뮤지컬 스타와 함께 음악과 퍼포먼스를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 된다"며 "기억에 남을 공연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료는 모든 좌석 1만원이다. 정읍시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된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00)를 통해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한편 공연은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7월에는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공연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단법인 돌레의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이 지난 28일 연지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주영화제작소, '천재운 작가 개인전' 내일 개막

전주영화제작소는 1층 기획전실에서 천재운 작가의 개인전 '삶에 외로움이 묻어날 때'를 내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반 시민들에게 예술, 독립영화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기획된 '2019 전주영화제작소 무료대관 공모 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복합문화공간인 전주영화제작소는 다음 달부터 공모에 당선된 전 작가의 개인전 '삶에

외로움이 묻어날 때'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 작가는 영문학박사로 영어교육과 시인, 화가 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예술 분야에 정진하고 있는 작가다.

앞서 지난 1·2월 덕진 갤러리와 전북도청에서 '삶의 깊이가 느껴질 때 그림을 그린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진행한 바 있다. 3번째 개인전인 '삶에 외로움이 묻어날 때'는 분주한 현대사회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존재인 인간들을 꽃과

나무를 통해 드러내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어린 시절 아름답게 기억된 자연의 생명체를 통해 현대인이 느끼는 처절함을 강렬히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영화제작소 관계자는 "천 작가는 어린 시절 꽃과 나무로 가득한 대지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동화 속 세상을 꿈꿨으나 어른이 되어 변해버린 동화 속 세상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얀 캔버스 위에 내면의 꿈을 그리고 있음을 작품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뉴스

완주문화재단, 비상근 선임직이사 내달 14일까지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완주의 문화예술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비상근 선임직 이사를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채용 인원은 비상근 선임직이사 5명으로 임

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선임직이사는 재단의 주요인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재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비상근 무보수로 회의참석 시 회의수당이 지급된다.

응시원서는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서류심사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경영지원팀(063-262-3955)이나 홈페이지(www.wf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돌레, 가정의 달 기념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 성료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돌레의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이 지난 28일 연지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문화시민주의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 공연은 '수작(手作)'이란 주제로 가정의 달인 5월에 맞춰 가족과 삶 등의 이야기를 손을 통해 비추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첫 순서로는 손을 가장 큰 재산으로 생각하는 지역예술가이자 정읍문화원의 사무국장 김용원 조각가가 출연하여 예술가로서 지역에서의 삶과 그동안의 인생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용원 조각가는 "정읍은 유구한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다"며 "이러한 문화적 바탕이 향후 지역의 발전 원동력과 경

쟁력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해 정읍 지역예술가로서 자긍심을 내비쳤다.

이어지는 무대는 오정해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뮤지컬배우 홍지민이 출연해 최근 이슈였던 다이어트 성공 비법을 관객과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의 삶과 가족, 사랑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뮤지컬 디바로서 그 역량을 증명하듯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지민은 "공연을 하며 여러 지역을 다녀보았으나 식당에서 식사 중 부족한 반찬을 옆 테이블 시민이 직접 나눠준 경험은 처음이었다"며 공연 전 있었던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정읍의 지역 인심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한편, 본 공연은 오는 6월 25일 '미작(味作)'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며 티켓은 6월 11일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1만원, 정읍 시민 30%할인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